

'AI 실증도시 꿈' 현실로... 유망기업들 속속 광주로

광주시-10개사 시청서 업무협약 기술개발·사업화·일자리 창출 협력 올해에만 기업 32곳이 광주행 200번째 이전 기업 실현 눈앞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에만 유망 인공지능 기업 32곳이 광주행을 선택했으며, 조만간 200번째 인공지능 이전 기업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이블클라우드, 스마트라이드, 루토닉스, 링커버스, 아이클로, 에듀템, 한국딥러닝, 미래아이티, 한테크, 엘렉션 등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AI) 기업 10개사와 190~199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AI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광주 AI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전문분야 생태계 조성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수행 ▲AI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 홍보 ▲AI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이날 광주시와 협약한 ㈜에이블클라우드사는 2021년 설립해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ABLESTACK'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설립 1년 만에 GS인증(1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라이드는 운수산업 가치사슬에서 디지

털 업무 도구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와 데이터 활용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택시업무 앱 'D노트'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루토닉스는 다중 분석 AI기술로 두피와 탈모를 예측하고 피부 노화 측정 등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뷰티 기업으로 전 세계 항노화 시장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링커버스는 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으로 꼽힌다. ㈜아이클로스는 특허받은 구강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이용한 구강질환 예측을 통해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덴탈 헬스케어 전문회사이며, ㈜에듀템은 AI기술 'ELA AI솔루션'을 중견·대기업에 공급하고, 2025년 첫 도입되는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관련 AI 기술 등을 공급하는 등 교육 특화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딥러닝㈜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로 구성된 AI기반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문자인식, 이미지 분석, 빅데이터 분석, 3D 객체 생성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미래아이티㈜는 재난 안전,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제조 AI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공공·민간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테크는 멀티 모달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On-Device AI 형태로 개발해 포스트 코리안과 현대백화점에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엘렉션은 비대면 통합 전력 관리 모니터링을 활용해 AI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감지 기능 등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전기차 구동 모터의 최적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인버터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AI) 유치기업 10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이민자·외국인 대상 일자리·비자 종합 지원

도, 종합지원센터 설치...외국인 실태조사·정책 모델 발굴도

전남도가 이민·외국인의 일자리, 비자, 일상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민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이민·외국인과 관련 적극적으로 신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이민·외국인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0억여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 사회 정착까지 종합서비스를 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운영, 전남지역 사업체-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

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될 통합콜센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채용해 지역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의료, 금융 등 생활밀착형 상담 업무를 한다.

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외국 인력을 통한 산업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과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비자 전환 대상자 545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

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 도비 4500만원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및 지역 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캠페인', 대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별 외국인 체류자격과 규모 등을 체계화 운영할 수 있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민정 유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내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설명회

광주시, 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시민 의견 설계에 반영

광주시는 "29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에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건립 예정부지 설명, 중외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용, 신설 전시관 건축계획 소개 및 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7년 개관 목표인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은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인 북구 매곡동 400번지 일원 3만4925㎡에 총사업비 1182억원을 투입해 전시관 2만2776㎡, 주차장 9500㎡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해 국내외 23개 응모작품 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 (㈜두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 공동)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2023년 12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유정아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중요한 문화자산이자 세계적 문화 브랜드"라면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참신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전시관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군, 미래 비행체 시장 선점 향해 비상

비행 모니터링 공모사업 선정...2028년까지 143억 투입

고흥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중심으로 미래 비행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항공 분야) 중 '비행성능시험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제 공모 선정됐다. 최근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기반 구축' 사업에 이어 항공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내 항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43억원을 투입,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비행 모니터링 시설과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광학 감시·음성 통신 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1.2km와 0.7km 활주로

2개를 보유하고, 비행 관련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간대별로 한 대의 기체만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5000여명의 방문객도 연간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국방 연구기관과 많은 국내 항공 관련 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 무인기·첨단항공교통(AAM) 등의 비행시험과 실증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으로 미래 비행체 시장의 선점과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